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이수지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석사

안미강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SDAQ*

Su-Ji Lee^a, Mi-Gang Ahn^b

^a Department of Account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 Department of Account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21, Revised 15 June 2021, Accepted 23 June 2021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effects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SDAQ firms by using financial statement.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a firm's listed market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investigation selection rate (or detection rate) and earnings manag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earnings management. The sample includes 9,603 firms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11 to 2018, all of which are manufacturing firms. This study conducted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he possibility of a tax investigation is the selection rate and the detection rate, and the profit adjustment was estimated at discretionary amount.

Findings -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both firms listed on KOSPI and KOSDAQ marke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tax investigation rates, the more significant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n KOSDAQ markets firms, the tax investigation detection rat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iscretionary accrual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can be interpreted that firms with a high rates of receiving a tax investigation decrease earnings management consideration of expenses such as additional tax amount due to the tax audit or a decline in corporate image.

Keywords: Tax Investigation, Tax Investigation Rates, Tax Investigation Detection Rates, Earning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JEL Classifications: K34, L60, M41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a First Author, E-mail: leesj3914@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anmikang@changwon.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최근 조세관련 심포지엄에서 회계투명성이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정보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각종 투자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특히 회계투명성이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이익을 기초로 구해지는 과세소득의 과소보고확률과 회계투명성 간 유의한 관계는 '전략적 납세순응 모형'에 의해 설명되어진다고 논의되었다(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 2020). 결국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소득 산출과 함께 회계이익 보고에도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증가할수록 무리한 회계이익 조정이 발견될 수 있다. 즉,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 뿐만 아니라 회계이익 산출과정에 대해서도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업 외부 정보이용자들의 관심은 세무위험이 높을 경우 더 커지며 이 때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박종일, 김수인, 전규안, 2019).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조사 과정과 추정세액 납부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향후 부담해야 할 많은 위험과 관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과 적절한 세금납부가 절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회계기준에 의해 보고된 당기순이익과 세법에 의해 산출된 과세소득 간의 차이로 인해 2008년 기준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인 69개 법인의 법인당 평균 추정세액이 117.6억원이었다.¹⁾ 즉, 세무조사는 과세소득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커질수록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과세소득을 누락한 기업들은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이익을 보고할 유인이 강하다(김문현, 2007).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기업의 회계이익 보고 성향을 연구한 고성삼과 박성섭(2011)은 조사 기간 이후 이익조정의 유인이 세무조사 선정기업에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김문현(2007)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이전 기간에는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지만, 세무조사 이후의 이익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로 세무조사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대해 검증한 심해린, 구정은, 최기호(2019)는 세무조사 선정률과 기업의 조세회피 간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의 여부가 아닌 세무조사 선정률을 세무조사 확률의 대응치로 추정하여 조사확률이 재무보고 목적인 회계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세무조사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계투명성에 대해 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관계가 세무위험이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차이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의 세금납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세무조사 확률을 측정하여 세무조사 선정으로 인한 위험과 함께 조사확률도 회계투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에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인 세무조사 확률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 산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법인세신고법인의 수입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 구간 내에 있는 전체 표본에 대입하여 세무조사 선정률을 구한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부정환 소득이 발견될 가능성인 세무조사 적발률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에 대한 측정치는 많은 이익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Dechow, Sloan, and Sweeney(1995)의 수정된 Jones모형을 이용한다. 특히 해당기업의 상장시장 특성이 세무조사 가능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장시장의 차이가 세무조사 선정률이나 세무조사 적발률의 크기에 따라 이익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관해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으며,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변수의 정의를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가설 검증에 대한 실증분

1) 국세청에서 2009년 발표한 2009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에 대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석과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시사점에 대해 정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세무조사와 경영의사결정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법인으로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원칙이다.²⁾ 소득 기준의 규정 외에도 조사대상 법인 선정시에는 신고성실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성실도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금 신고의 세부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한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인 성실도 분석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CAF)은 법인 규모 및 동일 업종별로 분류하여 매출액과 신고소득 등의 351개 요소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종합 신고성실도를 상·중·하위 그룹으로 분류한 뒤 신고성실도가 하위그룹인 법인을 우선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종합성실도는 직전 2개년 및 당해연도 신고성실도를 반영하게 된다.³⁾

국세청은 정기조사 대상에 수입금액 5천억 이상의 법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규모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한다.⁵⁾ 이러한 선정기준과 대상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며, 조세회피감소나 회계투명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세무조사 선정의 기준인 매출액은 구간별로 나누어 지는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이라는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인 대형 규모의 법인들은 조세회피에 있어 다른 규모의 기업들보다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해마다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알리고 있는데, 그 실적은 당해 조사법인 수, 조사 후 결정 소득금액, 전년도 기준 가동법인 수, 부과세액 등이다.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할 수 있는 세무조사 선정률은 조사법인수를 가동법인 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시된 조사실적을 국세청 공시자료를 통해 직접 수집한 후 매출액 구간을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5,000억원 초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세무조사 선정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는데, <Table 1>을 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가동법인 수는 2010년 440,514개에서 2018년 769,684개 법인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매출액과 상장법인수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완료된 법인은 평균 약 5,000여 개로 가동법인의 증가 추세와 달리 세무조사 선정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인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309호) 제2절 제178조, 제178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국세청의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2009)에 대한 보도자료를 요약하였다.

4) 국세청의 2010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2010)에 대한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5) 국세청이 2012년 발표한 “세무조사, 어느 때보다 공정, 투명해진다.”의 보도자료 일부를 요약,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2010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4만개로 이 중 100억 이하는 41만개에 달하며,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 제외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ble 1. Annual Tax Investigation Performance

(Unit: KRW 10 million)

Year	Number of Operation	Number of Audits	Tax Investigation Rate (%)	Assessed Tax Amount
2010	440,514	4,430	1.01	355,009
2011	467,401	4,689	1.00	444,377
2012	499,599	4,549	0.91	493,771
2013	538,134	5,128	0.95	661,284
2014	576,138	5,443	0.94	643,080
2015	623,411	5,577	0.89	551,173
2016	673,374	5,445	0.81	538,368
2017	726,701	5,147	0.71	450,470
2018	769,684	4,795	0.62	455,663

기업은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소득 신고의 누락을 가져오게 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Willson(2009)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 Tax Difference; BTM)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조세회피활동이라고 주장하였으며, Mills and Sansing(2000)은 재무회계에서 보고하는 이익과 세법으로 산출된 과세소득의 차이가 커질수록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심충진, 김문현, 이종운(2006)은 세무조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 이익 간의 차이는 세무조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Phillips, Pincus, and Rego(2003)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이 회계이익을 증가시킬 때 과세소득 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세법 변경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검증한 이성구와 최순재(2012)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측정할 변수가 둘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며,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세율이 낮아지기 전 이익을 이연하고 있음을 보였다. 유현수, 최규담, 김새로나(2017)는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조세회피 간 음(-)의 관계를 주장하였으며,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의 발표에서 이영환과 이동규(2020)는 전략적 순윤 모형을 바탕으로 투명성이 높을 경우 기업의 이익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를 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개별기업의 외부감사는 기업의 BTM을 감소시키는 것을 밝혔다.

김지원(2018)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동기를 가지며, 이 때 이익조정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Scholes, Wilson and Wolfson(1992)의 연구에서도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세율 인하 직전의 이익을 인하 이후 시점으로 이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효과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조세부담 최소화 목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가 정치적 비용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Zimmerman(1983)은 조세는 기업의 부를 이전시킬 수 있으므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비용으로써 이를 줄이기 위한 동기로 이익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세무조사 등의 사건을 통해 기업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과 관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간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세무조사가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와 오히려 조세회피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사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심해린, 구정은, 최기호(2019)는 Hoopes, Mescall and Pittman(2012)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선정률과 조세회피의 대응치인 유효법인세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상장기업들이 세무조사 선정률을 조세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며, 세무조사가 조세회피를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가분석에서 세무조사

적발률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적발률과 조세회피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될 때 과세당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세무조사와 조세회피 관계를 세법과 회계처리의 차이에 따른 이익조정과 연결시켜 검증한 구자은(2013)은 세법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회계이익의 투명성이나 그 외에 다른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결과, 세법과 회계기준이 일치할수록 당기 회계이익 및 차기 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감소시켰다. 즉, 국가별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정도가 재무적 회계선택과 조세회피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실제 세무조사 전후로 나누어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이윤상(2012)은 세무조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양(+)의 이익조정과 음(-)의 이익조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경영자가 양(+)의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하는 것은 과세소득 감소를 통한 이익 감소 조정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재무적 목적으로 회계이익을 증가시켰으나 현금유출 등의 이유로 과세소득을 감소 조정한 기업이 세무조사 면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 음(-)의 이익조정은 양(+)의 이익조정과 반대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고 과세소득은 감소 조정한 기업이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인 음(-)의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익조정행위와 세무조사의 관계는 세무조사 직전 보다는 세무조사 직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세무조사 직전 연도와 조사 연도, 직후 연도를 비교한 분석에서 이익조정은 차이가 없었으나, 세무조사 직전 연도와 직후 연도는 유의한 음(-)의 이익조정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문현(2007)의 연구에서도 기업이 세무조사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 크기의 차이를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이전 대상기업의 이익조정은 유의한 양(+)의 값이었으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이익조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유동 발생액 모형에서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는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의 기업특성 변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업 특성이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며,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이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징수가 재무보고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Hanlon, Hoopes and Shroff(2014)은 미국 내 50개 주 기업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영자는 복잡한 거래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며, 결국 이러한 유인으로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를 감소시키고 재무보고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국세청의 세금징수가 증가할수록 재무적 발생액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세무조사 이후 이익조정이 세무조사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문현, 2007; 이윤상, 2012; 심충진, 김문현, 이종운, 2006), 이는 기업이 세무조사 이후 관심이나 추정세액의 현금유출로 받게 되는 부담으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이후 이익조정이 세무조사 이전과 비교하여 더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에서는(고성삼과 박상섭, 2011; 나철호, 2016) 한 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짐을 예상하여 이익조정이 증가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심해린, 구정은, 최기호(2019)와 Hoopes, Mescall and Pittman(2012)의 연구는 세무조사 전후 기간 자체보다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직접 추정하여 그 값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기존의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세무조사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 세무조사가 행해진 시점 전후의 이익조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여 그 표본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으로만 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조사 전후의 기간이나 세무조사 대상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나 적발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세무조사 확률이 커질수록 기업의 이익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다.

2. 가설설정

조세전략 수립시 기업들은 세무조사 적발 가능성을 고려하는데(심해린, 구정은, 최기호, 2019),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추정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전반적인 기업위험(overall firm's risk)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초래하고 과세소득신고 성실성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추정세액 및 가산세 부담이 생기며, 세무조사 선정에 대한 정보 외에도 기업의 보고이익 수치, 각종 투자이사결정에도 불필요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은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더 신중한 경영이사결정을 행하게 될 것이다(이수지, 202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한 회계이익과 세법에 의해 산출된 과세소득 간에는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하거나 그 차이의 증감으로 인해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미강, 2005). 특히 과세소득의 불성실한 신고로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일지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 정보이용자는 발생주의로 산출된 당기순이익에 대해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회계이익이 투명한 처리과정을 통해 보고되었는지 의문을 갖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조정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기업은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조사에 대한 부담과 적발 시 발생될 추정세액 등의 향후 비용을 최소화할 동기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줄이려 하거나 이익조정이 최소화된 회계이익을 보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 정보나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세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공시하는 국세통계연보에서 법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 현황은 매출액을 구간으로 나누어 신고법인의 수, 조사 전 신고 소득금액과 조사 이후 결정소득금액,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 부과세액 등이 공개된다. 기업은 공개된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정된 세액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세무조사 확률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이 포함된 KOSDAQ 상장기업이다. KOSPI 시장의 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최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이 700억 원 이상 등이지만, KOSDAQ 시장 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 원(벤처기업의 경우 50억 원) 이상 등이다. 대부분 대기업으로 구성된 KOSPI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KOSDAQ 상장기업은 KOSPI 상장기업에 비하여 이익조정 그 크기나 유인이 상이할 수 있는데, 박종일, 백혜원, 남혜정(2015)의 연구에서 적자회피 목적으로 기업이 이익조정 수단을 이용할 때 KOSPI 기업들은 실질이익조정을 이용한 반면, KOSDAQ 기업들은 여전히 재량적 발생액과 양(+)의 관계를 가졌다. 결국 경영자는 이익조정이 미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있는데,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없다. 특히 외부 투자자들은 보고된 이익이 투명하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보다는 보고이익의 크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이사결정을 하고 있다(박종일과 남혜정, 2011).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 간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KOSPI 기업보다는 KOSDAQ 기업에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은 상장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음을 예상하게 한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경영이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상장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세무조사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거나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세무조사 선정 확률에 대한 자료가 매출액 크기를 구간으로 나누어지므로 KOSPI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KOSDAQ 상장 기업들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이익조정 간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KOSPI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세무조사로 추정세액이 결정되거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과정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 평가로 인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세무조사 가능성에 따른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가 작을 수 있다. 반면 KOSDAQ 시장의 기업들은 KOSPI 상장 기업들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유인이 더 강하여 세무조사 가능성이라는 사건에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KOSDAQ 상장법인의 특성상 상장시장에 따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장시장이 세무조사와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KOSPI 상장기업과 KOSDAQ 상장기업의 규모나 매출액 등이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KOSDAQ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률이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1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H1 KOSDAQ시장에 상장된 기업에서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할 것이다.

세무조사 가능성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는 세무조사에 선정될 확률 외에도 신고금액 대비 결정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측정된 적발 가능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과세당국의 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이용자들에게도 관심기업이 될 수 있어 성실한 과세소득 신고와 함께 회계기준에 의해 보고되는 회계이익도 투명하게 보고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은 과세소득의 적발확률이나 추정세액 예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은 세무조사에 따른 예상 적발금액의 대응치인 세무조사 적발률을 측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즉, 기업들은 세무조사에서 신고금액과 결정세액 간 차이에 의해 해당 행위에 적발될 확률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을 감소시키거나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KOSPI시장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크기가 작아 세무조사의 관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KOSDAQ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H2 KOSDAQ시장에 상장된 기업에서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본 연구의 대상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연구기간 동안 재무 자료 이용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표본선정기준으로 연구기간을 2011년 이후로 설정한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회계자료의 동질성을 위한 것이다. 세전이이익이 0보다 작은 기업은 과세소득이 음(-)이거나 결손금을 발생시키므로 세금 부담이 낮아 세무조사 가능성에 의해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작은 기업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최규담, 김갑순, 유현수 2015). 마지막으로 재무자료가 미비한 기업과 재무제표상 자본이 잠식된 기업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KOSPI에 상장된 표본기업은 4,040개이며, KOSDAQ에 상장된 표본기업은 5,563개로 분석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9,603개이다. 변수측정을 위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Table 2. Sample Selection

Sample Criteria	
Firms that settle accounts at the end of December among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11 to 2018	15,051
(-) negative pre-tax income	(4,707)
(-) Corporate cannot obtain corresponding data	(547)
(-) outlier	(194)
Total	9,603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된 후 세무조사 선정률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재량적 발생액 측정은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형인 Dechow, Sloan, and Sweeney(1995)의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다. 이를 통하여 얻은 재량적 발생액 추정치는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이다. 재량적 발생액은 기업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특성을 고려한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DA_{it} = \alpha_0 + \alpha_1 AUDITPROB_{it}(AUDITEXPO_{it}) + \alpha_2 KOSDAQ_{it} \quad (1) \\ + \alpha_3 AUDITPROB_{it}(AUDITEXPO_{it}) * KOSDAQ_{it} + \alpha_4 SIZE_{it} \\ + \alpha_5 LEV_{it} + \alpha_6 ROA_{it} + \alpha_7 FS_{it} + \alpha_8 CS_{it} + \alpha_9 BIGA_{it} + \epsilon_{it}$$

DA_{it}	: 재량적 발생액
$AUDITPROB_{it}$: 세무조사 선정률. 법인세 신고법인 중 당해연도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수입금액 구간별)
$AUDITEXPO_{it}$: 세무조사 적발률.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당초 신고한 결정소득 금액대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소득금액의 비율(수입금액 구간별)
$KOSDAQ_{it}$: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_{it}$: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_{it}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ROA_{it}	: 기업성과 (당기순이익/총자산)
FS_{it}	: 외국인주주 지분율
CS_{it}	: 최대주주 지분율
$BIGA_{it}$: 대형회계법인감사 여부. 대형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DA_{it} 는 수정 Jones(1995)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이다.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할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도 이익조정의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선택하였다(Scholes, Wilson and Wolfson, 1992).

주요 독립변수인 $AUDITPROB_{it}$ 는 세무조사선정률로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사업자 조사현황에서 법인세 신고법인 중 당해 연도에 조사를 받은 법인의 비율을 수입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활용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려 노력할 것인데, 이는 기업이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부담과 조사대상이 될 경우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조사 확률은 외부의 관심 기업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경영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이익에 대한 조정 유인도 줄이게 된다. 두 번째 세무조사가능성 대응변수는 세무조사 적발률($AUDITEXPO_{it}$)인데,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은 과세소득의 적발확률이나 추정세액 예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요 설명변수로 세무조사에 따른 예상 적발금액의 대응치인 세무조사 적발률을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적발률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사업자 조사실적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당초 신고소득금액대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결정소득금액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KOSDAQ 상장기업들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는 표본기업이 KOSDAQ 상장기업인지에 대한 더미변수에 세무조사 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을 대입하여 KOSDAQ 상장기업 더미변수와 세무조사 선정률의 상호작용변수($KOSDAQ * AUDITPROB$) 및 KOSDAQ 상장기업 더미변수와 세무조사

적발률의 상호작용변수(KOSDAQ*AUDITEXPO)를 생성하여 재량적 발생액(DA)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KOSDAQ 시장의 특성으로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행위를 감소시킨다면 이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이익조정의 측정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SIZE_{it}$ 는 기업 규모로서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이며, LEV_{it} 는 부채비율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계약 등으로 인해 이익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박 원, 2014)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ROA_{it} 는 t년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대용치인 수익성 지표로서 심해린, 구정은, 최기호(2019)의 연구에서 총자산 대비 이익이 클수록 세금납부 금액이 커지므로 증가하는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측정치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변수로 포함한다.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변수로 외국인지분을 변수인 FS_{it} 와 최대주주지분율인 CS_{it} 변수도 모형에 사용되었다. 소유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인 장미령과 이병철(2014)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기업특성 변수로 확인되어 외국인투자자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재량적 발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일, 이세용, 김경호, 2001, 박종일과 신상이, 2020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지분율이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BIG4_{it}$ 는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받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황 준(2011)은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 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유인이 더 낮아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보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3)는 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Variables(n=9,603)

	Mean	S. D.	Minimum Value	Median	Maximum Value
DA	0.017	0.074	-0.208	0.010	0.369
AUDITPROB	0.451	0.364	0.001	0.191	0.964
AUDITEXPO	0.540	0.320	0.000	0.716	0.964
KOSDAQ	0.579	0.494	0.000	1.000	1.000
SIZE	26.025	1.381	22.765	25.771	33.020
LEV	0.358	0.190	0.001	0.352	0.962
ROA	0.056	0.051	-0.291	0.044	0.914
FS	0.073	0.116	0.000	0.023	0.897
CS	0.131	0.181	0.000	0.040	1.000
BIG4	0.563	0.496	0.000	1.000	1.000

Notes: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인 세무조사가능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는 데 사용된 KOSPI와 KOSDAQ 상장기업 표본 수는 9,652개이다. 먼저 종속변수인 재량적 발생액(DA)의 평균값은 0.017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세무조사 선정률(AUDITPROB)은 평균 0.451로, 9,603개의 기업 중 약 4,329개의 기업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적발률(AUDITEXPO)은 평균 0.540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기업의 과세소득의 적발이 절반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의 자연로그로 측정된 기업규모(SIZE)의 평균은 26.025이고, 부채비율(LEV)과 수익성(ROA)의 평균은 각각 0.358, 0.05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주주지분율(FS)은 평균 7.3%, 최대주주지분율(CS)는 평균 13.1%이다.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는 BIG4 변수는 평균 0.563의 수치로 표본기업의 약 56%가 대형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량적발생액(DA)과 세무조사 선정률(AUDITPROB)은 예상대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세무조사 적발률(AUDITEXPO)은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액(DA)은 KOSDAQ더미(KOSDAQ), 수익성(ROA)과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반대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외국인주주지분율(FS),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여부(BIG4)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OSDAQ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많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을 적게 하였다.

Table 4. Result for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n=9,603)

	DA	AUDITPROB	AUDITEXPO	KOSDAQ	SIZE	LEV	ROA	FS	CS
AUDITPROB	-0.115 <.0001								
AUDITEXPO	0.078 <.0001	-0.941 <.0001							
KOSDAQ	0.099 <.0001	-0.984 <.0001	0.979 <.0001						
SIZE	-0.154 <.0001	0.658 <.0001	-0.513 <.0001	-0.587 <.0001					
LEV	-0.020 0.048	0.158 <.0001	-0.054 <.0001	-0.104 <.0001	0.188 <.0001				
ROA	0.175 <.0001	-0.133 <.0001	0.145 <.0001	0.144 <.0001	-0.119 <.0001	-0.237 <.0001			
FS	-0.111 <.0001	0.294 <.0001	-0.226 <.0001	-0.257 <.0001	0.492 <.0001	-0.109 <.0001	0.127 <.0001		
CS	-0.013 0.195	-0.009 0.379	0.010 0.336	0.008 0.423	-0.036 0.000	-0.019 0.061	-0.006 0.556	-0.006 0.549	
BIG4	-0.073 <.0001	0.281 <.0001	-0.245 <.0001	-0.259 <.0001	0.356 <.0001	0.058 <.0001	0.029 0.005	0.223 <.0001	-0.007 0.494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The number at the top mea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number at the bottom means the significance level.

2. 회귀분석결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재량적 발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세무조사 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회귀분석한 표이다.

Table 5. Result for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Discretionary Accruals 1(n=9,603)

	H1		H2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86 ***	4.013	0.097 ***	4.565
AUDITPROB	-0.044 ***	-2.647		
AUDITEXPO			-0.071 ***	-2.859
KOSDAQ	-0.002	-0.173	0.062 ***	5.225
AUDITPROB* KOSDAQ	-0.176 ***	-7.187		
AUDITEXPO* KOSDAQ			-0.019	-0.682
SIZE	-0.002 **	-2.140	-0.003 ***	-3.865
LEV	0.022 ***	5.169	0.019 ***	4.388
ROA	0.284 ***	18.608	0.276 ***	18.127
FS	-0.053 ***	-6.904	-0.052 ***	-6.752
CS	-0.005	-1.213	-0.006	-1.352
BIG4	-0.005 ***	-3.239	-0.005 ***	-3.365
F-Value	75.390 ***		69.230 ***	
Adj. R ²	0.065		0.060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우선 표의 왼쪽은 세무조사 선정률이 재량적 발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AUDITPROB)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조세 적발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고 조세회피를 줄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상섭, 2012; 심해린 등, 2019; Hoopes et al., 2012). KOSDAQ상장여부와 세무조사 선정률의 상호작용변수 역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임으로써 KOSDAQ에 상장된 기업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주요설명변수를 세무조사 적발률로 하여 검증한 결과에서 AUDITEXPO가 선정률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가졌다. 그러나 KOSDAQ상장여부와 상호작용변수에서는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체기업에서는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KOSDAQ 상장기업에서 적발률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2를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채비율(LEV)과 수익성(ROA)은 재량적 발생액(DA)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업규모(SIZE), 외국인주주지분율(FS),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BIG4)는 재량적 발생액(DA)에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가능성 변수가 매출액 크기로 구간이 산정됨을 고려할 때 KOSPI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작은 KOSDAQ 시장의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익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KOSDAQ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한다. <Table 6>에서도 전체기업으로 분석한 결과에서처럼 세무조사선정률 변수가 음(-)의 회귀계수를 가졌다. 이는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이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사 대상 선정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적발률 변수도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경우 적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Result for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Discretionary Accruals in KOSDAQ 1(n=5,563)

	H1		H2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182 ***	4.473	0.278 ***	7.491
AUDITPROB	-0.181 ***	-6.476		
AUDITEXPO			-0.053 ***	-3.021
SIZE	-0.006 ***	-3.530	-0.009 ***	-5.315
LEV	0.024 ***	3.832	0.019 ***	2.947
ROA	0.269 ***	12.459	0.255 ***	11.819
FS	-0.063 ***	-4.858	-0.061 ***	-4.727
CS	-0.005	-0.738	-0.006	-0.889
BIG4	-0.006 **	-2.545	-0.006 **	-2.559
F-Value	45.506 ***		40.587 ***	
Adj. R ²	0.053		0.047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KOSDAQ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제변수인 부채비율(LEV)과 수익성(ROA)은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졌다. 또한 기업규모(SIZE), 외국인주주지분율(FS)과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BIG4)는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일수록 음(-)의 이익조정을 하고 수익성이 높을수록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측정된 값을 연속변수가 아닌 선정 가능성이나 적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나눈 더미(dummy)변수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변수를 각각 중위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 값이 큰 기업에게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 0의 값을 주어 측정하였다. 결과에서 선정률 더미변수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임으로써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은 기업집단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발률에 대한 분석은 세무조사 적발률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여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Table 7. Result for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Discretionary Accruals in KOSDAQ 2(n=5,563)

	H1		H2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259 ***	6.688	0.283 ***	6.969
DumAUDITPROB	-0.008 ***	-3.224		
DumAUDITEXPO			-0.003	-1.081
SIZE	-0.010 ***	-6.262	-0.011 ***	-6.584
LEV	0.017 ***	2.754	0.016 **	2.560
ROA	0.253 ***	11.772	0.249 ***	11.569
FS	-0.062 ***	-4.813	-0.061 ***	-4.744
CS	-0.006	-0.915	-0.006	-0.949
BIG4	-0.005 **	-2.431	-0.005 **	-2.402
F-Value	40.777 ***		39.394 ***	
Adj. R ²	0.048		0.046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응치인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은 세무위험에 대한 확률의 의미로 측정된 변수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가능성은 해당 연도의 세전이이익이 0 미만일 경우 세금부담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과세소득의 크기에 의한 사후적 고려보다는 매출액 크기로 집단을 나누어 사전적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세전이이익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한다. 결과에서 세전이이익이 0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코스닥 상장여부와 상호작용변수도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졌다. 적발률 변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Table 8. Result for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Accruals 2(n=12,762)

	H1		H2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018	0.960	0.049 **	2.530
AUDITPROB	-0.079 ***	-3.132		
AUDITEXPO			-0.022	-1.199
KOSDAQ	0.007	1.332	0.016	0.977
AUDITPROB*KO				
SDAQ	-0.071 **	-2.371		
AUDITEXPO*KO				
SDAQ			-0.025	-1.247
SIZE	-0.001	-0.828	-0.001 *	-1.802
LEV	0.004	1.117	0.001	0.155
ROA	0.341 ***	35.320	0.334 ***	34.643
FS	-0.057 ***	-8.096	-0.055 ***	-7.750
CS	-0.001	-0.251	-0.002	-0.542
NI	0.013 ***	6.239	0.013 ***	5.913
BIG4	-0.008 ***	-5.635	-0.008 ***	-5.663
F-Value	292.870 ***		286.423 ***	
Adj. R ²	0.186		0.183	

Notes: 1. See the bottom of the equation (1) for the variable definition.

2. p: ***<0.01, **<0.05 and *<0.10.

V. 결론

최근 회계투명성과 조세회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과세당국에게 세무조사의 긍정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세소득이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이 둘 간의 유의한 관계는 세무조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추정세액이나 조사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상하게 한다. 이에 세무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기업입장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수록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과세소득을 보고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이익산출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세소득 산출과정 뿐만 아니라 회계이익의 조정가능성도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증가할수록 향후 발생할 위험과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등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이는 회계이익의 투명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 확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표본은 2011년부터 2018년에 KOSPI에 상장된 기업 4,040개, KOSDAQ에 상장된 기업 5,563개이며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익조정의 대응치는 수정된 Jones모형(1995)를 통하여 재량적 발생액(DA)을 측정하였고, 세무조사 선정률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국세통계연보의 법인

사업자조사실적에서 2011년부터 2018년의 법인세 신고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의 비율을 수입금액 구간별로 산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선정률 대신 세무조사 이전에 신고한 당초 수입금액대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수입금액의 비율로 세무조사 적발률 변수를 사용하여 세무조사 시 그 차이가 적발될 확률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KOSPI와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률이 높을수록 유의한 확률로 재량적 발생액의 이익조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SDAQ 상장여부와 세무조사 선정률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였으며,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 5,563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도 세무조사 선정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가졌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은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이나 기업 이미지의 하락 등의 비용 발생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세무조사 확률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줄인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며, 세무조사와 이익조정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 선정률 대신 세무조사 적발률 변수를 사용하여 세무조사 시 조세회피가 적발될 확률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OSDAQ 상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기업에서 세무조사 선정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시 적발 확률이 높은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KOSDAQ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그 크기가 큰 기업에 속하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OSDAQ에 상장된 기업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일수록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세무조사 선정률의 더미변수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로 측정된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세무조사 선정률과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인 가설 1만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간 전후로 시점을 지정하거나 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제한을 둔 것과 달리 세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만을 표본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전후를 구분하여 이익조정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KOSPI와 KOSDAQ 시장에 상장된 9,60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보다 더 넓은 범위의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시사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 시 적발될 확률을 산출할 때 국세청에서 공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구하였기 때문에 기업이 과세소득 신고와 관련한 계획 수립 시 과세당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과세당국 측면에서는 세무조사 선정률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내용을 정하고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 행태를 파악하여 추정세액을 결정하는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무조사 선정률 산출 시 국세청에서 공시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실제 조사 대상에 대한 다양한 선정 기준이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진행될 세무조사 관련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공개자료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그 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변수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른 변수도 더 정교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며, 생략된 변수들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References

- 고성삼·박상섭 (2011), “세무조사전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2), 41-65.
 구자은 (2013),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가 이익지속성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0(3), 99-138.
 김문현 (2007),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세무회계저널*, 8(4), 243-260.

- 김지원, 이익조정이 이익 및 현금흐름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나철호 (2016),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정기업예측모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섭 (2012),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37(3), 41-80.
- 박 원 (2014), “부채비율과 이익조정 의 관계에 이익조정 대체적 측정치와 부채유형이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4), 1932-1937.
- 박종일·김수인·진규안 (2019), “세무위험이 배당과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경영학연구*, 48(5), 1153-1193. DOI: 10.17287/kmr.2019.48.5.1153
- 박종일·남혜정 (2011), “실제 이익조정 및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과 사후적 자본비용: 유가증권상장과 코스닥상장기업의 실증적 증거”,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3(2), 187-239. DOI: 10.22781/kicpa.2011.53.2.187
- 박종일·백혜원·정설희 (2015), “적자회피를 위한 재량적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 활동: 유가증권상장과 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실증적 증거”, *경영학연구*, 44(6), 1539-1574. DOI: 10.17287/kmr.2015.44.6.1539
- 박종일·이세용·김경호 (2001), “법인세최소화 및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165-192.
- 박종일·신상이(2020), “세무위험이 실제 이익조정, 현금보유 및 미래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회계학연구*, 45(4), 41-92. DOI: 10.24056/KAR.2020.03.006
- 심충진·김문현·이종운 (2006), “세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23(4), 9-27.
- 심해린·구정은·최기호 (2019),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6(1), 81-111.
- 심호석·박재환·강창수 (2009),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차이와 세무조사”, *대한경영학회지*, 22(1), 229-260.
- 안미강 (2005),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 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지 (2021),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수·최규담·김세로나 (2017), “기업의 이익투명성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9(3), 165-212. DOI: 10.22781/kicpa.2017.59.3.165
- 이성구·최순재 (2012), “재량적 발생액과 BTDR관계 규명을 통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세율인하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5(1), 249-268.
- 이영한·이동규(2020),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2020조세정책심포지엄.
- 이윤상 (2012),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6), 2687-2704.
- 장미령·이병철 (2014),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2(4), 113-149.
- 최규담·김갑순·유현수 (2015),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회계학연구*, 40(5), 271-326.
- 황 준 (2011), “감사인의 규모와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 관련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193-225.
- Hanlon, M., J. Hoopes, and N. Shroff (2014), “The Effect of Tax Authority Monitoring and Enforcement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Taxation*, 36(2), 137-170.
- Hoopes, J. L., D. Mescall, and J. A. Pittman (2012), “Do IRS Audits Deter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7(5), 1603-1639. <http://dx.doi.org/10.2139/ssrn.1668628>
- Mills, L and R, Sansing (2000),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s: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7(1), 85-106.
- Phillips, J., M. Pincus, and S. O.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491-521.
- Scholes, M, S. and M, A, Wolfson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Prentice-Hall.
- Scholes, M, S., G, P, Wilson and M, A, Wolfson (1992),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 in Tax Rates: The Tax Reforms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161-185.
- Zimmerman, J. L (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5(C), 119-149.